2015년 제15호
2015년 7월 8일(수)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

한농연 조직 활성화 소식지

전화 : (070)7165-0017
전송 : (02)3401-6549
http://kaff.or.kr
kaff0001@gmail.com

한농연 지역연합회 소식

○ 진안군연합회 산림조합 1층에 직거래 매장 개소

- 진안군연합회(회장 김한국)은 7월 3일 진안군 산림조합 1층에서 회원 및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농연 농산물 직거래 매장 개소식을 가졌다.
- 이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는 한농연 회원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30여 품목이 전시·판매될 예정이다.
- 이항로 진안군수는 "한농연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전시·판매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홍보·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고, 김한국 회장은 "앞으로 농산물 직거래 참여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온라인 사이버 마켓을 개설해 알차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농업경영인 대회 개최

- 제13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경영인대회가 6월 24일 레츠런파크 제주에서 열렸다. '한농연의 힘을 모아 제주농업 개혁! 희망의 미래농업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대회는 장맛비에도 김진필 한농연중앙연합회장,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권영수 제주도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농업관련 유관기관·단체장, 농업경영인 회원 및 가족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 이날 대회는 개회식을 비롯해 제주농업정책 설명회, 농업인교류센터 찾아가는 서비스(법률 상담), 농기자재 등 각종 전시와 한농연 가족한마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 증평군연합회, 보광천 둔치에서 키운 보리 수확하여 불우이웃 돕기 성금 기탁

- 증평군연합회(회장 이증효) 회원들이 6월 24일 충북 증평군 보강천 둔치에서 보리를 수확하였다. 증평군연합회는 보리를 판매한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 구미시연합회 해평면회, 자율방역단 발대식 개최

- 구미시연합회 해평면회(회장 우병렬)는 6월 17일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위생 해충방제와 전염병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해평면 친환경 맞춤형 자율방역단 발대식을 가졌다.
- 회원들은 발대식에 앞서 방역장비 시연회와 약품 및 장비 취급요령, 안전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방역기간 동안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 방안 등 효과적인 방역활동에 대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해평면 자율방역단은 해평면회 회원을 중심으로 6월부터 10월말까지 24개리 마을에 주 3~4회 방역을 실시하고, 특히 하수구와 습문천 주변, 해평시장과 도리사 주변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이 서식하기 쉬운 취약지역에 집중 방역을 하고 주민신고 지역마다 친환경 맞춤형 방역 활동을 펼침으로써 각종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 우병렬 회장은 "올 한해도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바라며, 면민들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방역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방 농정 소식

○ 선거 때 돈 뿌린 충북 현직 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충북의 농협 조합장 54살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조합장 선거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두 달 남짓 구금돼 있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A씨는 후보자 시절인 3월 초 조합원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A씨는 같은 달 11일 시행된 조합장 선거에서 당시 조합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직위를 잃게 된다. 위탁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문 부장판사는 또 A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30만원을 챙기고 나머지 70만원을 다른 조합원 3명에게 전달한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 한편 선관위는 이들의 유죄가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수수금액의 10~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서귀포농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선고

-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귀포농협 조합장 현모(57)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 현 조합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4월 14일 조합원들에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등의 문자 메시지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또 '3월 11일 잊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조합원 260여명에게 전달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